

■ 현지학술조사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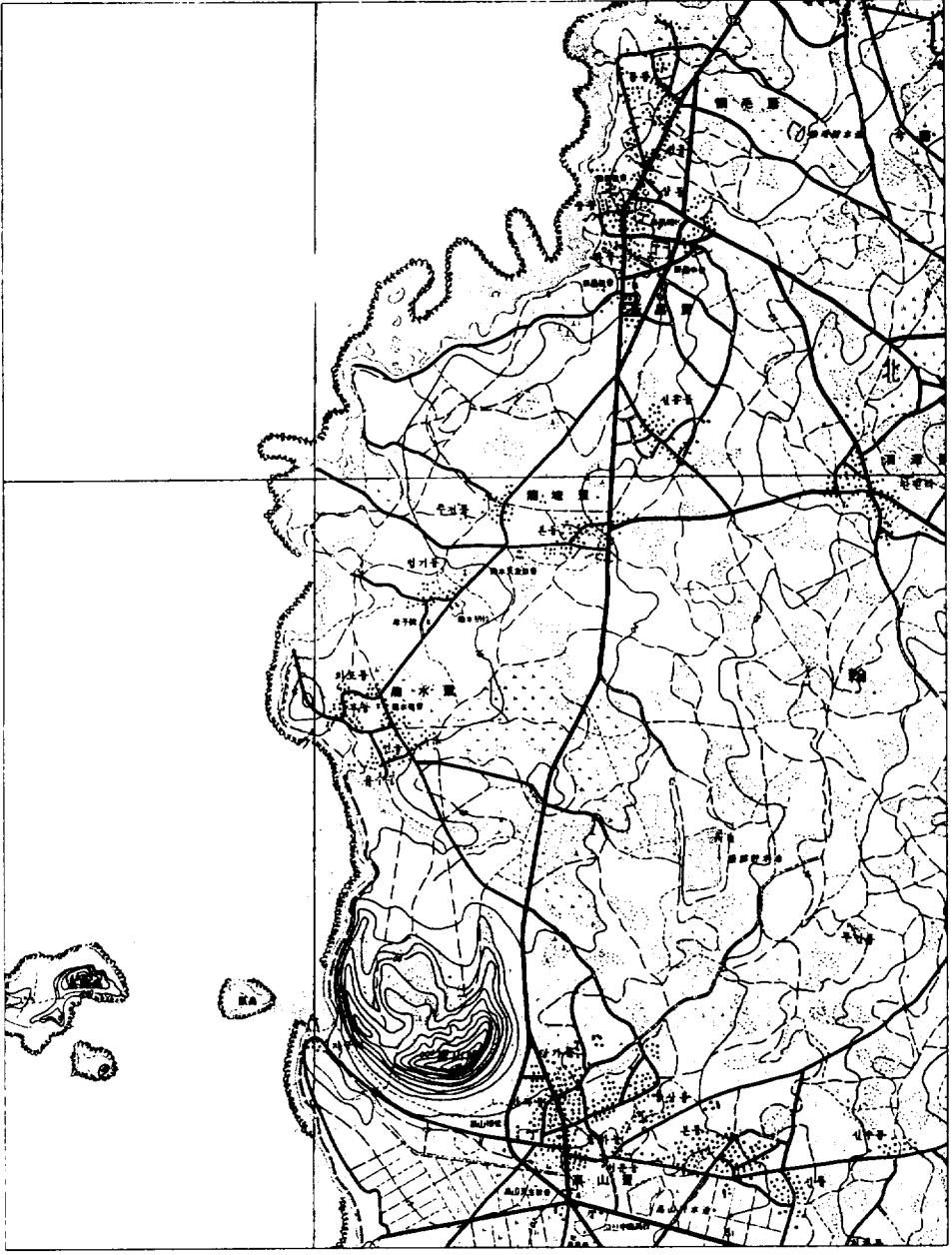
# 北濟州郡 翰京面 龍水里

1995년 8월 11일 ~ 8월 14일 조사

● 사회배경 / 방언 / 설화 / 신앙 ●



<절부암>



## 社會背景

### 차 례

1. 자연환경
2. 역사적 배경
3. 인문환경
4. 산업구조

### 1. 자연환경

용수리의 위치는 제주시에서 서쪽 일주도로를 따라 약 50km 떨어져 있으며 제주도 대부분 마을형성의 경향에 따라 해안에 형성이 된 마을이다. 행정상으로 북제주군 한경면 용수리로 되어 있다. 마을내 가구의 집결지는 용수리 정류소에서 약 0.8km쯤 북쪽으로 내려가면 다다른 데 주로 해안선 부근에 집결 되어 있다. 용수리는 동경 126° 11', 북위 33° 24'에 자리잡아 있는데 인접 마을로는 동쪽에 용당리, 북쪽 약 1.8km쯤에 신창리가 있고 남쪽 약 2km부근에 고산리가 위치한다.

용수리는 해발고도가 최고 5m에서 최저 1.5m로 평균 3m의 평지를 이루고 있다. 토질은 갈색 산성 토양으로 잎마늘 대량생산에 알맞은 점토이다. 그러나 이 토양의 성격과 제주 해안의 기후가 맞지 않아 비가 많이 오면 물이 고이기 일쑤여서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기도 한다. 또한 이 마을은 제주의 여타 지방과는 달리 논농사를 짓는 곳이

많아서 '작은 육지'라 불리기도 한다. 용수리의 총 면적은 454.8ha이며 이중 경지 면적은 298.3ha나 되어 1976년의 약 148ha나 1985년 252.4ha에 비하여 경지면적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토지개간의 결과로 추정하고 있다.

다음은 1985년과 1995년의 토지이용 상황을 비교한 것이다.

<표1. 토지이용 상황>

(단위 : ha)

	경지면적				임야	대지	기타	총면적
	논	밭	과수원	소계				
1985	67.0	181.5	3.9	252.4	86.6	-	44	382
1995	67.0	223.6	8.3	298.9	107.8	9.0	39.1	454.8

용수리에는 천연기념물인 박달나무가 자생하는 곳으로도 알려졌는데, 이 나무는 1928년 거문도에서 처음 발견된 후 이 곳 제주에서도 자생하는 희귀식물이다. 그간 이곳 자생지에서 수나무 32 그루만 남아 멸종이 될 위기에 있으므로 임업연구원과 제주대학교에서 거문도산 암나무를 증식하여 옮겨심었다. 이 나무는 물푸레나무과에 속하는 큰키나무로서 11~12월에 백색꽃이 피고 열매는 이듬해 5월에 흑색으로 익는다. 마을내 이 나무가 자생하는 곳은 절부암 주변이다. 용수리의 마을내 구성지역 이름은 '앞동네', '뒷카름', '법기동' 등으로 나뉘어진다.

## 2. 역사적 배경

### 1) 설촌유래

용수리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정확한 연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용수리에 관한 여러 기록들을 살펴봄으로써 설촌시기를 짐작해 볼 수

있다. <耽羅誌>에 의하면 부포(釜浦)에 관해서 나오는데 '수 서쪽 80리에 있다. 각포마다 옛날에는 감고가 있었으며 또한 양직이 있어서 포구를 출입하는 사람들을 사찰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또한 우포(友浦)에 관해서는 '옛날에는 방호소가 있었으나 지금은 폐지되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공민왕 원년(1352)에는 우포에 대거 왜적이 침입하였다고 한다. <耽羅紀年>에는 태종 18년(1418) 왜적이 우포 서귀 등지에 침입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상의 기록에서 보듯이 방호소, 수전소(水戰所) 등의 설치, 왜구가 침입 등으로 미루어 용수리의 설촌은 300~400년이 넘지 않았나 한다.

한편 일설에 의하면 1778년 김자방이 설촌한 시조라고 하고 있으며 용수리는 현 용당리 한복판 주위 200m 가량의 넓은 못(현재 주위 70m)이 잔존하고 있는데 이 못에 용이 오래전부터 살다가 개국 235년 경(조선 인종조) 승천하였다는 데서 못 이름을 따라 용수리라고 일컬어 오다가 현 용당리는 2구로 하고 지새포 벽길을 1구로 불리워 내려왔다. 그후 1952년 10월 3일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1구를 용수리로 행정구역을 실시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 2) 지명유래

- (1) 龍水里 : 원래 용수리는 두모리의 한 가닥이 갈리어(약 100년전) 이루어진 마을로서 최초에는 勝水里라고 하다가 기와공장이 있다 하여 지새포[瓦浦]라 불리었다. 그 후 한자 표기에 의해 龍水里라 칭하였다. 당초 승수리라 부르게 된 까닭은 물이 승승 잘 솟아난다고 한 데서 붙여졌다는 말도 있다.
- (2) 法機洞(벽골, 벽걸) : 용수리에 속해 있는 이 마을은 지형이 '베틀'처럼 생겼다 하여 '베클'이라 불리웠는데 와전되어 '벽걸'이라 부르게 되었다.

- (3) 지새개(瓦浦) : 현재 용수리 포구로써 옛날에 기와(사투리 : 지새)를 만들었던 도요지가 있었다. 절부암 영덕동산 옆 '굴덕'이라고 부르는 곳에 도요지가 있어서 지금은 기와장 부스리기 등속의 흔적만을 찾을 수 있다. 이 곳의 도공들이 왜구의 침입을 피하고 질 좋은 재료를 얻기 위해 무릉 2리 평지동→신평리→구역리 등으로 이주한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
- (4) 병덧물(병든물 : 兵屯, 병든물) : 용수 저수지를 말하는데 군사가 주둔해서 물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게 되었다. 철새 도래지로서 많은 철새들이 날아와 겨울을 나는 곳이기도 하다.

### 3) 유적 및 유물

- (1) 방호소(防護所)<sup>1)</sup> 및 수전소(水戰所)<sup>2)</sup> : 용수리 우표(友浦 : 군영개)에 있었다.
- (2) 우두연대(牛頭烟臺) : 烟臺는 주로 해안선에 분포되었으며 오늘날의 통신 역할을 하면서 외적 침범을 연기로 알렸다. 牛頭烟臺는 지새개 근처의 쇠머리 코지에 있는 것으로 남으로는 서림연대, 북으로는 두모연대에 응하였다. 몇 년 전까지 방위초소로 쓰였던 구조물이 옛날의 연대를 대신하듯 황량하게 서 있다.
- (3) 당산봉(唐山峰) : 남으로는 모슬봉에 북으로는 판포봉에 응하였다. 봉수대 및 연대는 감관 1명, 별장 6명, 봉군과 연군 각 12명이며 망한(望漢)은 매번 2명이 섰다.
- (4) 지새그릇 : 기와를 구었던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 와포 굴터에서

---

1)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적이 침입할 우려가 있는 요충지에다 설치하던 군대의 감시소

2) 수전소에는 판옥선 1척, 비상양곡이 3섬이고 사격수가 104명, 선장 1명이 있었는데 1600~1650년경에 폐지됨.

출토된 이 유물은 고찬화씨가 소장하고 있다.

- (5) 저승문 : 당산 서쪽 바다에서 깎아질러 있는 절벽을 구멍 뚫은 듯이 5개의 동굴이 수면 위로 보인다. 굴속은 한없이 깊어서 닿은 데가 없으므로 저승문이라 하였다. 바다에서 보이는 이 동굴의 경관은 비할 데 없이 아름답다. 해산물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여름밤에는 밤낚시터로 알려졌다.

#### 4) 효행과 정절

- (1) 孝子 梁瑞宗 : 梁瑞宗은 어머니 나이가 80인데 집안이 가난하였음에도 효성이 지극하여 아침저녁으로 정성을 다하고 맛있는 음식을 마련하여 드렸는데 병으로 위급하게 되자 斷指 수혈하니 소생되었으므로 마을 사람들이 효자로 천거하여 完文이 내려왔다(續修 綱錄).
- (2) 孝子 高明吉 : 高明吉은 천성이 純孝하여 어버이를 극진히 모시는데 80세의 늙은 어머니가 돌림병을 얻어서 기절하자 약을 달여 드리고 똥을 맛보며 병세를 가늠했다. 단을 만들어 기도하며 자기 몸이 대신할 것을 빌었으나 위독하게 되자 斷指하여 수혈하니 소생하여 3년을 더 살았다. 마을 사람들이 효자로 천거하니 제주 목사가 아뢰어 정표되었다(續修 綱錄). 孝子 高明吉의 묘는 왕지계에 있으며 孝子碑는 용수리 경내 당산봉 기슭에 있다.
- (3) 奉明瑞의 처 高氏 : 烈女 高氏는 高恩福의 딸로서 순조 34년(1834)에 태어났다. 진명서에게 시집을 가서 시부모에 대해서는 情誠之節하고 남편에 대해서는 情誠之德으로 온 집안이 화목하더니 남편이 득병하여 위독하자 斷指 수혈로 소생하게 하여 3년을 더 살게 했다. 마을에서 이를 보고하니 完文이 내리고 임금께 아뢰어 정표되었다(續修 綱錄). 위치는 당초 메골동산 용수리 버스정류소 국도 건너편에 있었으나 도로확장으로 병든물 저수지 쪽으로 150m 지점

으로 옮겨졌다.

- (4) 節婦 高氏 : 조선말 遮歸村 출생의 高氏는 19세 되는 해에 洞里 康土詰에게 출가하여 단란하게 지냈었다. 그러던 중 하루는 고기잡이를 나간 남편이 심한 풍랑을 만나 불행하게도 변을 당하고 말았다. 부인 高氏는 애통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식음을 잊고 시체나마 찾으려고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해안을 배회하였으나 끝내 찾을 수 없으므로 남편의 뒤를 따르는 것이 도리라 생각하여 소복단장하고 용수리 바닷가 속칭 영덕동산 숲에서 목메어 자살하고 말았다. 이 애절한 烈女의 뜻을 하늘이 굽어 살피었는지 다음날에는 남편의 死體가 高氏의 목멘 장소에 표착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곧 관가에 알려지자 高宗 3년(1852) 大靜 判官 愼裁祐는 고씨가 목멘 곳의 암석에 節婦岩이라 刻을 하고 두 시체를 관비로 합장하여 장례를 당산봉에 치르고 祭田을 사서 매년 祭享費를 마련하여 1년 1회 음력 3월 15일에 제를 지내도록 하였다. 처음에는 고산과 용수관 내에서 해마다 교대로 제를 지내오다가 근간에 와서는 용수리에서만 지내고 있는데, 한경면장과 지역유지들을 비롯하여 주민 1백여명이 모여 朝鮮朝 말 이곳에서 남편을 따라 죽은 節婦 高氏의 정절을 기리고 있다. 祭田도 현존하고 있으며 백년간 이 제의가 치러져와서 이 제는 주민들의 삶의 일부분이 되었다. 이처럼 절부암은 절부 제주 고씨의 절개를 후세에 기리기 위한 곳으로써 1971년 8월 26일에 지방기념물 제9호로 지정되었다. 碑文을 살펴보면, 前面에는 '節婦岩', 前面 상단에는 '金應河 書, 河首李八根 刻', 背面에는 '同治 丁卯年 記字平 三', 맞은편에는 '愼裁佑撰'이 새겨져 있다.

### 3. 인문환경

龍水里는 95년 6월 현재 총 208가구에 인구는 683명이다. 총인구에서 성별로는 남자 319명, 여자 364명으로 여자가 약간 많으며 남녀성



비는 女 100 대 男 87.6이다. 용수리의 인구 현황을 성별, 연령별 인구 분포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성별 인구수>

(1995년 6월 현재)

男	女	계
319	364	683

<표2. 연령별 인구 분포>

(1994년 말)

연령 \ 성별	남	여	계
0-9	40	34	74
10대	45	53	98
20대	71	58	129
30대	55	37	92
40대	29	27	56
50대	36	39	75
60대	23	54	77
70대	11	30	41
80대	5	16	21
계	315	348	663

참고로 연령별 인구 분포와 성별 인구 분포에서의 총인구의 차이는 연령별 인구 분포의 최신자료 미비로 1994년말 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이다. 1976년 12월 총인구 972명에 비교해 보면 20년 전에 비하여 약 30%의 인구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자연적 감소보다는 사회적 감소에 원인이 있다. 즉, 직업관계, 교육문제로 10대 후반부터 30대까지 제주시로 이주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 용수리에는 18여 개의 성씨가 분포되어 있는데 성씨별 가구수는 다음과 같다.

<표3. 성씨별 가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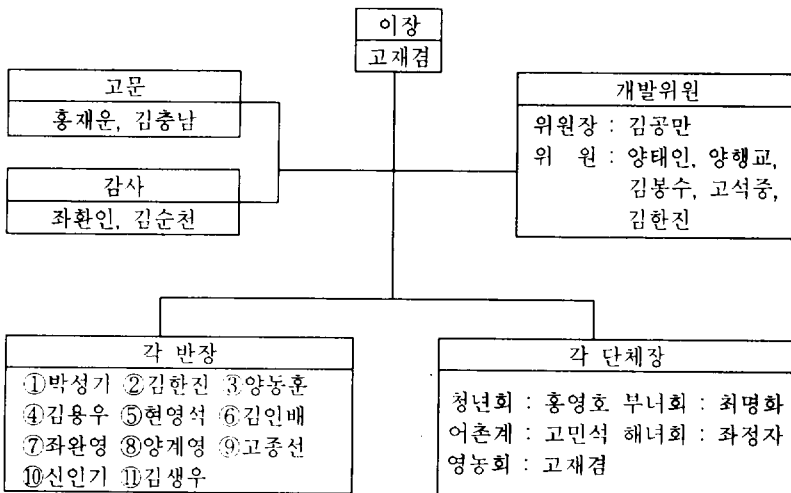
성씨	가구수	성씨	가구수
강	5	양	13

성씨	가구수	성씨	가구수
고	30	위	1
김	54	이	16
노	2	임	1
문	1	장	1
박	6	정	1
서	1	좌	11
송	2	홍	2
신	2	황	1

위의 표에서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다양한 성씨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고씨, 김씨는 전체 가구수의 56%로 용수리의 주요 성씨라 하겠다.

용수리의 자체 단체 및 조직으로는 마을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이장을 비롯하여 고문, 개발위원이 있고 그 하부조직으로 각 반장과 청년회, 어른계, 영농회, 부녀회, 해녀회 등이 있다. 용수리운영 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3. 용수리운영 체계도>



용수리내의 교육시설은 현재 전무한 실정이다. 1994년도까지 국민학교 1개교가 있었으나 취학 아동의 감소로 1995년 3월 1일자로 고산국민학교와 신창국민학교에 통합되었다. 용수국민학교는 1946년 11월 4일에 개교하여 1995년 3월 1일 폐교시까지 총 45회 1577명이 졸업했다. 용수리민들은 학교의 폐교로 상실감을 갖고 있으나 학교 건물을 컴퓨터 교육시설이나 도서관으로 활용하려는 방안을 가지고 있다.

용수리의 의료기관으로는 1986년 7월 1일에 설치된 보건 진료소 1개소가 있으며 주 역점사업은 제주도내에서 가장 높은 뇌염모기 서식밀도로 인한 예방접종 실시이다. 이외에 풍토병은 없다.

용수리는 과거에 식수로 '모살물', '좁지물' 등의 용천수를 이용했으나 지금은 환경면 저지리 소재의 관청에서 나오는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다.

사회 경제적 발달에 힘입어 용수리의 문화시설은 20년전과 비교해보면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5. 농기계 · 자동차>

(1995년 6월 현재)

자동차	트랙터	경운기	코바인	바인더	기타
58	21	120	5	5	2

<표6. 문화시설(%)>

전기	수도	전화	텔레비전	기타
99	98	95	98	20

<표6>의 기타 사항은 노래방기계, 개인의 오락시설, 컴퓨터(1대), 케이블 TV(2가구) 등이다.

용수리에는 기독교, 천주교, 미륵도 등의 종교가 있다. 기독교는 예장파인 한국 기독교 예루살렘교회(1970년 창설)와 대한예수교 장로회 용수교회(1932년 창설)가 있다. 천주교회는 용당으로 가는 범기동에 자

리하고 있으며 미륵도는 그 교세가 미미하여 현재 1가구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사찰이 없어서 불교신도들은 한경면 판포리와 고산리에 있는 절에 다니고 있다. 각 종교별 신도수는 <표7>과 같다.

<표7. 종교별 신도수>

(단위 : 명)

예수장로교회	예루살렘교회	천주교	불교	미륵도
44	45	300	다수로 추정	1

한 마을내에 이처럼 다양한 종교 분포를 보이는 일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다. 또한 사람은 없지만 불교 신도수가 상당수 있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일이다. 그리고 여러 종교로 인한 갈등은 없고 종교가 마을 단합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 4. 산업구조

주민 대부분이 농업을 위주로 하고 있으나 해산물이 풍부한 어장을 지니고 있어 수산업의 비중 또한 크다.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작물은 잎마늘과 감자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밖에 고구마, 보리, 콩, 굴, 벼 등이 재배되고 있다. 잎마늘의 경우 재배면적의 1/7은 집집마다 평균적으로 종자로 남겨놓고 있다.

다양한 작물들이 재배되고 있고 벼농사와 밭농사가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이하다.

<표8. 농산물 수확량 및 소득>

(kg당 단가 : 1994년 기준)

		마늘	감자	고구마	콩	양배추	참깨	양파
재배 면적	ha	46.06	23.20	10.66	35.20	5.63	8.40	2.76
	m'	138,180	69,600	31,980	105,600	16,890	25,200	8,280
평당수확량		9	6.6	7.5	0.53	30	0.16	20
총생산량(kg)		1243620	459360	239850	55968	506700	4199	165600
단가		750	1000	266	2500	222	5250	500
총수익(천원)		932715	459360	54206	139920	111474	22049	82800
가구수분포		135	105	33	135	5	40	5

(자료제공 : 고산농협)

어업 현황을 살펴보면 이 지역 주민 대부분이 모두 밭농사와 겸업을 하고 있다. 잡녀의 수는 약 70명으로 40~60대가 대부분이다. 한달에 2-여일 정도 작업하나 농번기인 5월 10일경부터 7월 중순까지는 작업을 중단하고 마늘 농사에 참여한다.

어선은 동력선 9척(7t 미만)이 있고, 낚시용 보트(리조트 보트포함) 6척이 있다. 생산물별에 따른 어획량 및 수익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9. 수산물 어획량 및 수익>

해산물	어획량(kg)	총수익(천원)
소라	48800	229398
전복	515	31453
해삼	76	815
건뿔	6850	21700

(자료제공 : 한림수협)

전복은 한림과 귀덕의 종묘배양소에서 종묘를 사다가 배양해서 양

식업으로 큰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어획량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이 마을에는 관광사업으로 행해지는 용수리조트가 있는데 이것은 한경면 저지리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써 마을과의 큰 연관성은 없다.

- 조사자 : 김창언(90), 양선예(93), 한미혜(93), 고영준(94)  
(( )은 학번, 이하 같음)

# 方 言

## 차 례

1. 머리말
2. 조사 어휘
  - 1) 기구명(농기구, 가재도구)
  - 2) 농경에 관련된 어휘
  - 3) 동물명
  - 4) 식물명
  - 5) 인체에 관련된 어휘
  - 6) 상태를 나타내는 어휘
  - 7) 지명

## 1. 머리말

이 보고서는 1995년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행해진 한경면 용수마을의 '방언' 조사 내용이다. 그 내용은 반원들이 미리 작성한 질문지를 기초로 농업명, 농기구 및 가재도구명, 동물·식물명, 지명 등으로 되어 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은 용수마을 방언의 형용사의 수록인데, 이는 지금까지 행해 온 학술조사 중 최초의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사시 능률과 효과를 기하기 위해 여러 차례 사전 답사와 예비 모임을 가지면서 용수마을의 역사와 배경에 대한 특수성을 살피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조사는 주로 면접을 통한 조사를 하면서 필기와 녹음을 병행하였다. 가끔은 제보자들의 소극적인 자세로 말미암아 조사의 어려움을 느꼈지만 반원들의 하고자 하는 의욕과 선배들의 도움으로 조사 결과는 좋았으며, 반별 조사정리 시간에는 각자의 필기 결과와 녹음 테이프를 비교 대조하여 공통되는 것을 뽑아 정리하였다.

이 보고서는 표준어와 그 표준어에 상응하는 제주방언의 일반형 및 용수마을 특유의 방언을 실어 비교하기 쉽게 하였다. 지명은 지적도와 함께 그 이름을, 얽힌 유래를 조사한 바에 비추어 기록하였으며, 형용사의 조사는 자료가 전혀 없는 관계로 질문지 없이 조사자의 말과 몸짓, 그리고 여러 사물의 동원으로 임기응변 식의 조사를 하였다. 『제주어사전』(제주도, 1995)을 참고하여 그 표제어들을 ‘제주방언의 일반형’으로 삼았다.

## 2. 조사 어휘

### 1) 기구명(농기구, 가재도구)

표준어	제주방언의 일반형	용수마을의 방언형	비고
가마니	가맹이, 가매기	가마기	가마기는 나뭇 짝으로 짠 것
등잔	각지	각지	각고나계끔 허영 고장에 걸렁 불싸는 것고라 등피, 동록 락 현 것고라 각지
남포	남뚜등, 등피	등피	
가는체	거름체	거름체, ㄱ는체	좁질게 ㄱ루 치는 것
키	푸는체	푸는체	푸끄는 것
어레미	얼맹이	얼맹이	
솔가마	고소리	고소리	솔 닦으는 것



표준어	제주방언의 일반형	용수마을의 방언형	비고
솔가마	고소리	고소리	솔 닦으는 것
가는 대바구니	곤대구덕, ㄱ는 대구덕	ㄱ는 댓구덕	
희곽, 성냥	곽	곽, 성냥	
성냥개비	곽살	곽살	
광주리	광조리	광주리	등글렁허영 전복 살리는 것 고라 광주리
쓰레받기	구똥받이	구똥받이	몬지, 구똥 담은 것
상자, 옷장	궀	궀	
글경이, 갈퀴	글경이	갈궁이	솔잎 긁으는 것
가위	ㄱ세	희곽, 성냥	곽
미호미	나대	나대, 나다	낭 끊는 것
양푼	낭푼, 낭푼이	낭푼이	cf) 나무로 만든 밥그릇은 남박
죽젓광이, 죽젓개	남자, 배수기, 배슬기	배수기	동촌더랜 남죽이랜 허곡
마개	마개	두껍이, 다개, 두께	마개 막으라, 두껍이 더끄라
도리께	도께	도께	
항아리	항, 황	황	
돼지먹이통	똥도고리	똥도고리	
짚방망이	딩드렁마께	딩두렁마께	낭으로 팽보다도 크게 만든 것
세탁방망이	물마께	물마께	
밥도시락	동고량, 밥차롱	동고량착, 고량착 밥차롱착, 차롱착	
면경	멘경	민경	
짐 실는 마차	물구루마	물구루마	보통은 구루마랜 허고, 물이 ㄸ시민 물구루마, 췌가 ㄸ시민 췌구루마
바늘	바농	바농	
병	벙, 빙	벙	
지갑, 전대	주멩기	주멩기	몸에 창 멩기는 것
주머니	보곰지	보곰지	

표준어	제주방언의 일반형	용수마을의 방언형	비고
부지깽이	부지땡이/부지땡이	부지땡이	
비	비차락	비, 빗자리, 빗차락	cf) 대비까리, 썩살빗자리, 대죽빗자리
살강, 식기넣는 장	살래	살래	
나무로 만든 바가지 (곡식에 쓰이는 것)	손박 솔박, 쯤박	쯤박	cf) 크기가 작은 것은 데왓새기
얼레빗	얼레기, 얼럭지	얼레기, 얼럭지	
바구니	바구리	바구리	
채롱	차롱	대차롱, 차롱, 차롱착	
자루	줄리	잘리	두재(보리 담아 두는 자루)
맷돌	정그래	정그래	cf) 크기가 큰 것은 그래
화덕	숫덕	숫덕	
아궁이	숫강알	숫강알	
부삽	부술	부석	
쟁기	잠데	잠데	
보습	보섭	보섭	
벧	벧	보섭	
따비	따비	떼비, 따비	
낫	호미	호미	
호미	굴갱이	굴갱이	cf) 크기가 큰 것은 호맹이
쇠스랑	쉐시랑, 쉼시랑	쉐시랑	돛걸름 내는 것
흙방망이	곰베	곰베	
부삽대신 쓰는 고무래	불그네	불그네	불경 담아내는 당그네
고무래	당그네	당그네	즈록 돌정 날래 너는 것
방아	방애	방애	돌방애, 물방애, 남방애, 남뽕이
절구공이	방엿귀	방엿귀	
곡괭이	목괭이	목괭이	
벼훑이	보리클	보리클, 나룩클	
삼	갈래죽	갈래죽	
삼태기	굴채	굴채	
망태기	망텅이	망텅이, 착부지 걸름 착부지	

표준어	제주방언의 일반형	용수마을의 방언형	비고
작은 망태기	멜망탱이	멩망탱이	
바디	브디	브디	
장독	장항	장항, 항	
장독대	장항뒤	장팡뒤	
물동이	물허벅	허벅, 물허벅	
명석	명석	명석	
명석	명석	명석	
나무쪽박	남박, 남박세기	종팍	서귀포는 솔박이랜 허주
주전자	주전지	주전지	

## 2) 농경에 관련된 어휘

표준어	제주방언의 일반형	용수마을의 방언형	비고
벼	나룩	나룩	
벼가리	나룩눌	나룩눌	
벼이삭	나룩고고리	나룩고고리	
벼씨	나룩씨	나룩씨	
벼짚	나룩짚	나룩낭	
벼이삭 훑는 기계	나룩클	나룩클, 클	
김, 잡초	검질, 지심	검질	
고랑	고랑	고랑	
이랑	고지, 이렁	이렁, 고지	
거름	걸름	걸름	
놉	놉	놉	
짚	보리낭, 짚	보리낭, 짚	
추수, 가을	ㄱ슬	ㄱ슬	
가을 추수한 것	ㄱ슬커 느람지	ㄱ슬커 느람지	
새끼	스끼		繩, 짚스끼
항상 물이 많은 논	흐렁논	흐렁논, 팔논	
묵정밭	번흔 밭	번흔 밭	

3) 동물명

표준어	제주방언의 일반형	용수마을의 방언형	비고
까마귀	가나귀/가매귀	가마귀	
까치	가치, 간치	까치	
거위	게우, 게위	거위	
갈매기	굴매, 굴매기, 곰새	물독, 마당 굴매기	야개기 헤양헌 것
솔개	똥소래기, 소래기, 소로기	독수래기, 똥소래기	
두루미	뚜럼	두럼, 두루미	야개기 질렁 풀럭풀럭 뚜럼 닭은 놈
종달새	드룻생이, 하늘생이	주꾸리생이	
피꼬리	모스(시)고기약생이	피꼬리생이	
참새	밥주리, 줌생이, 춤생이	춤생이	
병아리	비애기, 빙애기	빙애기	cf) 달걀:독새기
닭	독	독	
학	하기새, 할기새	학도새	
말	물	물	검은물, 황물, 백매
소	쇄	쇄	노랑쇄, 검은쇄, 얼럭쇄
강아지	강생이	강생이	
쥐	중이, 쥘이	중이	cf) 새앙쥐:꺾랑중이
돼지	돛, 도새기	돛, 도새기	작은돼지:자릿도새기
고양이	고녕이, 괴	고녕이	
염소	염쇠, 염송야기	염송애기	
소라	구제기, 구쟁기	구쟁기, 구제기	
성계	구살, 귀살	구살	
고등어	고등에	고등에	
계	쟁이, 깡이	궁이	춤깡이, 놀깡이, 똥 깡이, 풋깡이
명태	맹태	멘테	
고등 따위의 작은 조개, 바다 우렁이	꺾매기, 보말	보물	수두리, 먹보말, 굼생이 문테기
개구리	갈개미, 굴개비	가가비	맹꽂이, 두계비
올챙이	고노리, 맨주야기, 맨주기	고노리, 맨주기	강베룩

표준어	제주방언의 일반형	용수마을의 방언형	비고
개미	개여미, 개염지	거염지	
거머리	거멸, 거말	거멸	
지렁이	개우리	지렁이	개우리는 실처럼 가는것
번데기	고주아리, ㄱ저리	고추번데기	
귀뚜라미	공중이	공중이	지저분한디 앉장 다리 들락들락 하는 것
잠자리	밥주리, 물자리	밥주리	붉은잠자리는 고치산 데 푸른잠자리는 왕불
뱀	베염	버염	구렁이, 물배기, 실베염, 돛줄래
하루살이	누네누니, 호로살이	누네누니	
맹꽁이	맹마구리	맹마구리, 맹꽁이	
송충이	소낭버랭이	소낭버랭이	
메뚜기	만축, 말축	만축	물만축눈 툇 튀어나 오곡, 뒗다리 잡으면 꼬박꼬박 하는 것
파리	쁘리	쁘리	
지네	주녕이, 지녕이	주녕이	
반디	불한디	불한디	
진드기	진독, 진득	지득	

#### 4) 식물명

표준어	제주방언의 일반형	용수마을의 방언형	비고
김, 검불	검질	검질	
바랑이 따위	제완지, 절화니	제완지	막 줄 받아 가명 크는 것
쇠비름	쇄비눔	쇄비눔	
모자반	뎀, 뎀망	뎀검질	
매듭풀	돛수에, 창쿨, 돛치기쿨	돛소에	
쑥	숙	숙, 쑥	
깨풀	복쿨	복쿨	

표준어	제주방언의 일반형	용수마을의 방언형	비고
양하	양애	양애, 양애검질	
사초	상고지	상고지	1.괭이사초, 방동사니 2.올리
망초	친상쿨	친상쿨	
땅파리	푸께, 푼칠귀	푸곶낭	
잔디	잔뒤역	태역검질	
강아지풀	ㄱ랏, ㄱ라지	ㄱ랏	
피	피	피, 물피	
비수리	솨싸리, 땀싸리	솨싸리풀	
머구슬나무	머쿠실낭, 몰쿠실낭	몽쿠실낭	
팽나무	푹낭	푹낭	
동백나무	동박낭	동박낭	
보리수나무	볼래낭	볼래낭	
복숭아나무	복숭개낭	복숭개낭	
유자나무	유지낭	유지낭	
웃나무	웃칠낭, 칠낭	웃낭, 웃칠낭	
메밀жат밤나무	즈방낭, 베낭	즈베낭	절부암에 이신 막큰낭
버드나무	버두낭	버드낭	
소나무	술낭, 소낭	소낭	
구지뽕나무	굿가시낭	굿가시낭	
억새	어웁/어웁	어웁	
아카시아	썰거리낭	썰거리낭	
오동나무	오동낭	오동낭	똥 나민 그거 하나 싱 그민 그걸로 께쩍허영 간땀 허주
뽕나무	뽕낭	뽕낭	
탱자나무	개탕쉬낭	개탕주낭, 개실구낭	
앵두낭	에영지낭, 외영뒤낭	어영두낭	
마늘	마농	마농	
고추	고치	고치	
우뭇가사리	우미		
		두불콩	한 해에 두 번 심어 거두는 콩의 한가지

표준어	제주방언의 일반형	용수마을의 방언형	비고
		홍악줄	담쟁이허고 비슷한 디 더 두꺼와
삼백초		삼벨초	약초로 쓰이는 것
		춤비늬	반찬도 행 먹는 거라
		개농 줄래비	
		큰비파낭, 비풍낭	
		때기낭	
		똥낭	똥내 팡팡 나는 것

5) 인체에 관련된 어휘

표준어	제주방언의 일반형	용수마을의 방언형	비고
머리카락	머리카락	머리터럭	
가마	상감	가메, 상가메	쌍가메:가마가 2개
가르마	갈름	갈름, 가림	압갈름:압 가린다
턱	턱가리	턱가리	
수염	쉬염	쉬염	
턱수염	턱가리수염	녹대쉬염	
코수염	콧쉬염	콧쉬염	
얼굴	낫	낫	
뺨	양지	양지	
목	모가지, 야개기	야개기, 야가기	
이마	임덩이	임덩이	비어:눈꺼리, 눈망둥이
눈	눈	눈	
눈동자	눈동즈	눈공죄	검은자:검은 공죄 흰자:회 공죄
눈썹	눈썹	눈썹	
눈곱	눈곱재기	눈곱재비, 눈곱제기	
다래끼	개썹	개썹	

표준어	제주방언의 일반형	용수마을의 방언형	비고
턱반이	턱바지/턱바레	턱반이	
소경	봉사	봉스	
애꾸눈	웨눈박이/외누배기	혼짜봉스, 외눈백이	웨눈백이:동물에 주로 사용, 사시:사팔눈
코	코	코	
입술	입바위	입바우	아래입술:알입바우 윗입술:윗입바우
혀	세	세, 셋바닥	
병어리	말모로기/말모래기	모래기, 말모래기, 버버리	
말더듬이	버버리	중치 맥힌 사름	
귀	귀	귀	귀밀:귀똥이
귀에지	귓밥	귓밥	
귀이개	귀오기	귀옥재기	
눈두덩	눈두께	눈두께	
귀머거리	귀마구리	귀막쉬, 귀마구리	
손	손	손	
겨드랑이	즈깁이	즌깁이, 좃깁이	
배꼽	배똥, 배또롱	뱃똥	
허벅다리	넘적다리	장다리, 너벅지	
무릎	동무릎	동무덤, 동머립, 동머리	동머립 자렴저
오금	즈금태기	자리다	오금 똥겹저
저리다	자리다	정강이, 성무니	발 자렴저
정강이	정깁이	정강이, 성무니	주술:종아리 뒤쪽 불룩한 곳
뼈	광	광	
복사뼈	귀마리광	구마리, 발구마리	
팔	폴	폴	
엉덩이	잠지폐기	잠지, 잠지폐기, 엉동폐기	



6) 상태를 나타내는 어휘

표준어	제주방언의 일반형	용수마을의 방언형
가볍다, 힘들지 아니하다	가든 한다	개볍다, 베다
웃이 짧아 차림새가 이상하게 보인다	가들랑 한다	가들랑 한다, 줄르다
아뜩하다	가마뜩 한다, 헤뜩 한다, 히어뜩 한다	허뜩 한다, 어지랭이 일어난다
까맣다<꺼맣다	가망 한다 <거멍 한다	까망 한다<꺼멍 한다
가무스름하다	가모롱 한다, 가모스롱 한다	
가뻘하다	가베또롱 한다, 개베또롱 한다	개베또롱 한다
바람이 시원하다	건드렁 한다	건드렁 한다, 사노롱 한다, 머스끄락 한다
게으르다	간세 한다	간세 한다
등불이나 눈이 환하지 않다	개미용 한다	개미용 한다, 개미롱 한다
등불이나 눈이 환하지 않다	베롱 한다	베롱 한다
꺼끌럽다	꺼럽다	꺼롭다, 꺼럽다, 꺼시랭이 탄다
밥에 물기가 많아 단단하지 못하다	게작 한다	게작 한다
굽다	굽닥 한다	굽드락 한다, 굽드글락 한다
별이 쨍쨍하다	과랑과랑 한다	과락과락 한다, 굴다
성미가 과격하다, 소리가	팔팔 한다	팔팔 한다
갈갈 한다		
노르스름하다<누르스름하다	노리롱 한다<누리롱 한다	
맥없다	느랏느랏 한다	뜨다, 느랏 한다 (발자국에 물나켜)
똑똑하다, 분명하다	또라지다	또라지다
되바라지다	뒤벨라지다	뒤벨라지다, 때룩때룩 한다
다습다	뜨시다	뜨시다
다르다	뜨나다	뜨나다, 뜀나다
달다	돌코롬 한다	돌다, 돌코롬 한다
따뜻하다	돛돛 한다<똥똥 한다	멘도롱 한다 cf)실럽다

표준어	제주방언의 일반형	용수마을의 방언형
반드럽다	멘작하다	맨딱하다, 민딱하다, 민질 민질하다 cf)대머리:맨데 강이
미끈하다	미럽다	미럽다
푸석푸석하다	모히다	모이다
밧살스럽다, 알밧다	밧성글르다, 밧성버르다	밧상볼롭다
물렁하다	므랑하다	물랑하다, 문작하다
발그스름하다	볼고롱하다	볼고롱하다, 볼구롱하다
겹다, 지치다	버치다	버치다
부끄럽다	부치럽다	미죽다
조금 모자라다	브뜨다	브뜨다
깔깔하다	사락사락하다	발스란 못 걸으켜
신선하다	서느럽다	서느럽다, 건드럽다
매우 냉하다	씨글라하다	서녕하다
싫다	설롭다	칭원하다
일이 잘고 많아서 열른 하기 어렵다	슌바랍다	슌바랍다
싱겁다, 관심이 없다	심드렁하다	쌌 옷다, 심드렁하다
어중간하다	어중구랑하다	어중구랑하다
떠들썩하다	왕왕작작하다	왕왕장장하다, 귀눈이 캄 캄하다
태도가 조용하다, 조용 하고 깊숙하다	으소룩하다	오시룩하다
겨름이 없다, 바쁘다	즈를지다	즈르지다
간지럽다	제굽다, 즈굽다	즈갈롭다
구수하다	쿠시롱하다	코시롱하다
한가하다, 한가롭다	한걸하다	한걸하다, 한거하다
헛되다, 진실성이 없다	허드렁하다	허지롱하다
파르스름하다	푸리롱하다	퍼렁하다

7) 지명

지명	위치 및 유래
장안내	장안동
뒷가름	후동, 뒷동네라고도 하며 44번지 일대
강데기 머들	신창 바로 밑에 위치한 곳으로 21번지 일대
지름장 동네	고산쪽으로 나가는 길목에 있는 동네
와포동	기와포, 지숫개라고도 하며 기와 굽던 곳이라는 뜻에서 생겨난 이름
용수리	본디 이 부락은 두모리의 한 가닥이 갈려져 이루어진 마을로서 최초에는 승수리라 불리다가 기와공장이 있다고 하여 지세포라 불리었다. 그 후 한자표기에 의하여 용수리라 칭하였다. 당초 승수리라 불리게 된 까닭은 물이 승승 잘 솟아난다고 하여 붙여졌다 한다.
벽결	법기동 : 용수리에 속해 있는 이 마을은 지형이 벼들처럼 생겼다고 하여 벼클이라 불렀는데 와전되어 벽결이라 부르게 되었다. 말을 원나라에 조공할 때 감독하던 법관이 주재했던 동네로 법골이라는 명칭에서 변하여 '벽결, 벽골'이 되었다는 설도 있다.
전동	앞 동네, 45번지 일대
용못	용당리 : 옛날 둘레가 200m 가량의 넓은 못이 있었는데 이 못에는 용이 오래전부터 살고 있다가 상승하였다고 하여 용못이라 불리게 되었다. 1953년부터 용수리의 한가닥이 갈리고 '용(龍)자'를 쓰는 것이 좋다고 하여 용당리라 칭하였다. 용이 있었던 큰 못이 이제는 메워져 도로가 나고 집이 지어졌으며 둘레가 50m 가량만 남았다.
주근디머들	주전동 : 이 마을의 주위가 밭으로 에워싸고 있는 데서 주전동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편 이 마을 주변에 '고양이 머들'과 '쥐고브디 머들'이 있어 '쥐고브디 머들'이 변하여 주근동, 주전동으로 되지 않았나 한다. 신창쪽으로 나가는 길목인 33번지 일대로 옛날에는 이곳이 매우 큰 마을이었으며 말을 많이 길렀다고 한다.
당알	할망당 밑에 있는 동네

지명	위치 및 유래
매골동산	매고모동산 : 현재의 충혼묘지 일주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해골리 많이 묻혀 있다는 뜻에서 붙여진 지명이다.
추곳동산	추곳동산, 옛날에 활을 쏘던 곳
언덕동산	절부암이 있는 곳. 절부암 : 용수리의 바닷가의 전설이 얽힌 바위, 대를 배려 섬으로 간 남편을 기다리던 부인이 떨어져 죽었는데 남편의 시체가 떠올라와 어울어졌다는 전설이 있다.
반동산	용수리 동북쪽에 있는 언덕, 용수, 신창과의 반길이 됨
붉은동산	붉은 내의 북쪽에 위치, 검쇄빌래, 검은쇄빌래라고도 함
소남동산	남드리소, 다리가 놓여있고 붉은내가 흐르는 줄기가 있는 곳
벽걸동산	
당산봉	오름 이름
알오름	
쇄머리	소의 머리모양으로 되어 있는 해안가
제성머리	
절골머리	매골동산 옆, 군인들이 많이 죽어서 뼈가 묻힌 곳
붉은내	길이 여섯갈래로 나 있는 곳의 내로, 전쟁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의 피가 흘러 붉어졌다는 데서 유래
여섯걸음	길이 여섯 갈래로 나 있는 곳
식은물	
깊음못	
박아물	박아물
군앙물	매골동산의 동북쪽
벙뒹물	저수지가 있는 곳
추승물	탄약고가 있는 곳의 지명으로 29번지 일대
용수	화상물의 북쪽
멍쟁이	알멍쟁이, 웃멍쟁이
벼드성	벼드성이, 벼농사가 잘 되는 지형
광쟁이	
선곶이	저수지와 용당의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으며 9번지 일대
감옥개	용수리의 포구, 조선시대 진상하는 말을 뽑아서 배에 실었던 포구
북에원	

지명	위치 및 유래
즈남캐	멍쟁이의 동쪽
왕지캐	왕자캐, 왕이 많았던 자리라는 데서 유래
문논캐	모기가 많은 곳
알캐	
장택고	
장택코지	장택코에서 서쪽으로 죽 뻗어나간 여
선주녀 코지	
웃 아즌여	
두럭바위	용수와 이어진 곳
진발목이	
드름목이	드름목
즈개못	
구녕캐	
탑발	당알 서쪽 바닷가, 수탑과 암탑이 있는데 이 사이로 배가 출항. 이 탑 아래에 있는 동네

- 조사자 : 한만보(90), 변희숙(93), 윤수정(93), 김양미(93), 전은경(94), 이보경(95), 송명주(95)

## 說 話

### 차 례

- |               |               |
|---------------|---------------|
| 1. 절부암 이야기(1) | 7. 누운섬        |
| 2. 절부암 이야기(2) | 8. 매골동산 ; 붉은내 |
| 3. 지사개        | 9. 왜 죽은 못     |
| 4. 군용개        | 10. 좌씨 유래담    |
| 5. 매조제기(1)    | 11. 화상수       |
| 6. 매조제기(2)    | 12. 당산봉 이야기   |

### 1. 절부암 이야기 (1)

이조 말경에 용수리에는 '강사철' 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무척 가난하여 제 나이에 혼수를 못 치르고 30이 되어서야 겨우 高 氏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다. 그는 때때로 '죽섬'에 가서 대나무를 베어다가 바구니를 만들어 팔아서 생계를 잇기도 했는데 혼례를 올린 지 3일이 되자 그만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대나무를 구하기 위해 배를 타고 죽섬으로 가던 중 풍랑을 만나서 그만 水中孤魂이 되고 말았다. 그후 고씨는 초석과 짚신 열 두 켤레를 준비하여 남편을 찾아 나섰다. 하나 짚신이 다 닳도록 해안가를 헤매 었으나 시신은 나타나지 않았다. 고씨는 낙심한 끝에 그곳 해안가 팽 나무에 목을 매어 자살하니 이상하게도 그날 밤에 고씨가 자살한 나무 밑으로 남편의 시체가 떠올랐다. 이렇게 되자 동리 사람들은 주 사람

의 시체를 고산봉에 합장하고 그 거룩한 정신을 기리니 곧 관가에서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시 판관이었던 愼裁佑는 이를 절부암이라 명명하여 마을 사람들의 귀감이 되게 하였고 동리의 해녀들은 뜻을 모아 음력 3월 5일이면 제를 올린다.

<제보자 : 좌환인(남·58세)>

## 2. 절부암 이야기 (2)

<조사자 : 아이들도 다 아는 절부암 얘기 해 줘서.>

절부암 얘기는 전설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걸 알아야 허메. 지금으로부터 1400여년 썸 되메. 고씨 집안에서 고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추적해서 올라가서 그 여자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제 같으면 서귀포시 법환동 출신이라, 법환. 그 부인이 추적해서 올라가니까 아무 아무 개 딸이라는 것까지. 그 강사철이라는 사람은 누님을 따라서 용수에 와서 살던 사람이라. 경현디 혼자 살당 연분이 되어 그 여자를 만났산거라.

<조사자 : 어땜 만나수파?>

옛날에 만난거야 지금처럼 연애해서 만난 게 아닐테주. 어땜 연분이 되난 만났주게. 저지리의 명의동이란 마을이 이신디 거기가 촌락이 설립된 지가 우리 마을보다 오래돼서. 우리 마을이 시작된 것도 명의동 사람들이 고기 잡으레 왔던 것이 그게 우리 마을의 설촌 시작이라. 경현디 어느 동네에 들어가 보민 흐르는 물을 가운데 끼고 양쪽에 마을이 구성된 것이 되신디 우리 마을은 그렇게 안 되고, 동네가 가운데 놓고는 물이 이리로 흐르고 저리로 흐르고 그래 마을이 가난하다는 게 그거라. 지질학자들의 얘기는 고산에 강 봐도 물이 가운데 잇고, 제주 시도 서귀포도. 저지리의 사람들이 고기 잡아 먹으레 우리 동네에 내려온 것이 마을 시작인데 제일 오래 된 집이 포구에 지금 초가집으로

쓰는 조그마한 집이 우리마을에서 지은지 제일 오래 돼서. 그것이 우리 마을의 시작이라 할 수 있주게. 경행 몇 가구가 살당보난 강사철 관계와 고씨 부인 얘기가 나왔주. 강사철 누님이 이씨 집안과 결혼해서 살아신디 강사철 누님에게 의존허영 살아서. 왜 왓느냐고 하니까 그 손자 손자 되는 사람이 강사철 내외간의 묘 잇는 것을 별초하고 잇다고. 별초해서 그 양반이 죽으니까 그 자식들은 별초를 안허주마는 절부암 내외분의 무덤이 이서. 그러니까 전설이라 전설이라 하는데 엉뚱한 소리하지 말고 사실임을 증명해 보자는 거라. 당산봉 고산과 용수 경계선에 지금 이서. 비석도 글자가 자꾸자꾸 파지지. 그래 그걸 가지고 잇는게.

(머리를 긁적이며)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어. 제주시에 있는 고찬환 선생님이 고고학으로 연구허메.

그 글자는 나는 못 읽어봤고. 당산봉과 용수 경계선에 큰 밭이 파종 안하고 노는 밭이 이신디 그 밭 위에 보면 넓은 산 하나 있고 빗돌이 산담 밖으로 이서. 빗돌이 거기 이신디 크기가 우리 키만 허메. 그래 거기 묻혀져 잇고. 또 깊이 들어가보며는 이제부터 절부암 얘기 계속 허주. 내외가 만나서 사는데 그 시대는 고산 저 차귀도가 대나무를 조성하던 곳이라. 바구니도 만들고 떡차룽도 만들멍 고기 잡고 살아신디 사람들이 대나무를 구해다가 이제 말하면 니네 뗏목 알아지크냐?

<조사자 : 테우 마쑈?>

어, 그거 테우를 타고 대나무를 해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비바람을 만나서 다 없어져서. 거기 간 사람들은 일행이 이신디 일행의 시체는 올라온디 강사철의 시체가 안 올라오는 거라. 결혼한 지 한달 미만인지 두달 미만인지 몰라도 부인이 남편 시신을 건질라고 이제 일로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영 한림 쪽으로 또 요쪽으로 찾는 디. 남편을 잃으니까 시체라도 건져서 남편을 장례지내는 게 자기 할 일을 이렇게 살고 잇었는데 그렇게 조사해도 남편 시체가 안 나오니까 이여자가 나 도 남편을 따라서 가야한다고. 경행 이제 말로 목욕도 하고 옷도 잘



다려 입고 신발도 잘 신고 절부암에 와서 나무에서 목 매어 죽어서. 목 매어 죽으니까 그 날 동네 사람들이 아 참 이거 안됐다고 생각해서 장례지내줘서. 그 때는 장례가 까다로웠주. 장례해서 돌아오는데 그 뒷날 남편 시체가 거기 와서. 남편 시체가 떠올라온거주. 거 참 신기하긴 신기하다. 살아있을 때 그렇게 못 만나고 부인이 죽으니까 이제야 만나래 왓구나 하고는 그 시대 사람들은 지금처럼 마스크 타지 않아도 그 시대는 그 시대만큼 소리가 나는 거라. 사고가 났으니까 여러 사람들의 소리가 나실테주. 우리 용수정은 대정향교와 제주향교 경계선에 있는 마을이라 관심이 많은 거라. 경헌디 이 중간에 있어서 문제가 많아. 이런 소문이 나면 향교에서 선비할려고 공부하는 향도들이 들을 것 아니라. 그 때 향교 다니는 유생들은 이제 같으면 지방 군수급이주. 거기에 지금 절부암에 가 보민 신제우 판임이 이서. 그 사람이 그 동네에서 끝나고 대정향교에서 공부할 시절에 아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허 그거 참 열녀가 아니냐고. 이런 사람을 추모해서 비석도 세워주고 잘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 공부하는 유생으로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해신디. 그 사람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아 글썽 그 사람이 공부하는 밤 꿈에 전해오는 얘기에 따르면 꿈에 그 여자가 나타난 거라. 머리 풀고 하얀 옷을 입은 소복한 여자가 나타나서 도와달라고.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지니까 경형 것이주게. 경형 그 사람이 내가 도와줄 게 뭐 있느냐고. 이름을 가르쳐줍니까. 나는 지금 힘도 없고 돈도 없고 하는데 이 다음에 최대한으로 도와드리켄 해서. 경허난 그 사람이 어떤 고생가 하고 공부하던 시절에 동네도 와 보고, 목 매어 죽은 곳도 보고, 무덤도 보고 했는데. 이 사람이 공부 끝내고 과거 보러 한양천리를 건너가서 전해오는 얘기에 따르면 목포에서 나룻배로 왓다갓다 할 때니까. 과거에 급재해서 내려오는데 일행이 있을 거 아니라게. 다른 사람도 급재해서 내려오는데 밤중에 지난 번에 봤던 그 여자가 나타나서 계속해서 빨리 떠나라고 하는거 아니라. 떠나라고. 깨어난 보난 꿈이고 그 여잔 전에 봤던 사람이라. 아 이 사람 말

을 들으면 좋겠다고. 일행을 깨우고 사공보고 출발이라고. 경헌디 사공이 무슨 소리요. 시간도 안 됐고, 물 때도 안 맞았는데 무슨 소리냐고. 우리가 배를 많이 타 봤으니까 지금 가는 게 아니고 더 잇다 가도 된다고 허난 신제우가 선원을 독촉해서 배를 떠나와. 다른 사람들은 빨리 가서 물 하느냐고 닭이 울어서 떠나도 된다고 해서, 잠 자고 헛주게.

신제우가 제주 성래 항구에 딱 들어오니까 다른 사람들은 관탈에서 만나서 거기서 풍랑을 만나게 된 거라. 그래 이 사람만 들어온거지. 신제우가 그 여자를 보답할 게 뭘까 생각하다가 자기 돈을 모금해서 그 줌 되니까 연대로 해서, 그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가 일본 사람이 들어 오기 바로 직전이라. 그 사람이 비문을 세우고, 돈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일본 사람과 계속 이어지메. 그 사람이 절부암이란 글자를 일본사람에게 조각하게 하고 자기 이름도 써놓고 글 쓰는 사람에게 쓰게도 하고. 돈도 많이 마을에 줘서. 원래 용수와 고산이 함께 위령제를 지내게 되어신디 돈이 없어지니까 고산 사람들이 손을 내밀고 발을 내밀게 되었주. 그래 우리 마을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잇고 우리가 해야 할 건디 해서. 일본시대에는 우리 마을에 70년 전 책자도 이서. 그 모금 관계의 책. 그 때의 일본사람들, 경찰, 고산 주재소 소장들도 도와준 사람들이라. 그렇게 멧 십원, 멧 백원 모영 이 재를 함께 지내다가 끝나서 해방이 되니까 우리 마을 청년들이 그 때 반항하던 사람들도, 왜냐 꺼떡꺼떡했던 사람들도 준비하겠다고. 경헌디 이거 안되겠다고 이러면 되겠느냐고 여자니까 해녀들이 준비하자고. 여자들로 모금을 한것이 아무개 아무개 부인 해서 그 책이 좌악 나와 이서. 그렇게 한 돈으로 삼백 멧 십평 땅을 사서 경작해서 그 돈으로 이 절부 추모제를 지낸 거주. 음력 3월 보름이면 용수 부녀회가 그 일을 맡아서 치루고 이서. 마을에서 맡아 하다가 부녀회로 넘어가고 이 일이 부녀회, 해녀회가 합동이 되어 매해 음력 3월 보름이면 절부 추모제를 지내고 잇주.

### 3. 지사개

우리 마을에는 옛날 지사개라고 이서. 지식애라고 하는 건데 지금 어촌개하는 것이주게. 경헌디 근본이름은 지식애가 아니고 다른 이름이 이서서. 그 이름으로 시작해서 지식애로 되었다가 용수로 된 것은 아마 일본의 한 36년 동안에 썼던 이름이라. 그게 용수 1구 2군디 용당이 용수 2구. 계서 국민학교도 해방 후에 용수와 용당 합해서 용수 국민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우리 마을이 큰 편이라. 그 때에 우리 마을에는 기와 그릇을 만드는 동네라서. 절부암 옆에 나 어렸을 때 기와 굽던 터가 이서서. 그것을 이제는 딱 정리해부러트주마는. 우리 마을이 흠이 좋아부난게.

### 4. 군용개

저쪽에 가면 용수리 북쪽 해안에 우리 동네에서 군용개라고 하는데 가 이서. 우리 제주도가 몽고 지배 시대에 말을 키워 수송하는 곳이라. 서부의 말을 키워 육지로 운반허젠 허민 지금처럼 무슨 시설이 잘 되지 않으니까 그 쪽에 가민 물이 밀물되영 팍 차며는 이렇게 #코양으로 되어진 게 이서. 아 여기서 물이 차며는 말들을 실었던 곳이라 우리 동네에서 군용개 군용개렌 허메.

### 5. 매조제기 (1)

어느 마을에 강 보민 포구에 돌로 쌓아 놓은 게 잇지 안해?  
<조사자 : 아 절부암 앞에 돌 쌓은 거 마썸?>

포구 앞에 잇는 거.

<조사자 : 어저께 말한 시체 관계 아니꽈?>

시체 애긴 들어샤?

<조사자 : 예. 어저께 동네 사람한테 조금 들엇수다.>

옛날에는 일본 시대나 뭐나 시체가 올라오민 그 구역에서 담당해서. 애 먹엇주게. 조난당한 시체나 전쟁 중의 시체가 올라오민 그 마을 담당이라. 경 허난 사람들이 포구에 돌을 쌓앙 시체 올라오지 말렌 빈 거라. 그 다음부터 쌓은 돌 위로 시체가 올라오지 안헌텐 허는 말이 이서.

<제보자 : 이우규(남·64세)>

## 6. 매조제기 (2)

<조사자 : 옛날에 시체가 포구에 떠오르민 그 구역 사람들이 시체 걸고 경 했잖아예? 경행 탑 쌓아놔두니까 그 때부터 시체가 안 떠올라 왓텐 허는디 그 탑을 뭐렌 험니까?>

매조제기.

<조사자 : 예?>

매조제기. 독수리 비슷한 매 주게. 꼭대기에 매머리 모양으로 그걸 흉내내서 만든 거라. 바다에 나강 어부들이 많이 죽으니까 살아서 돌아오라고 세웠거든.

<조사자 : 그거 언제 세웠수꽈?>

아마 그것도 절부암 그 후젤거라. 그 후에 안되겠다. 부락 사람들이 그걸 세운 후에는 이제 사람들이 바다에 가서도 덜 죽어서. 그게 지금 말하자면 수호신이주게. 하나의 여장군, 남장군 허듯이.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

<제보자 : 좌환인 (남·58세)>

## 7. 누운섬

우리 마을에서 누운섬을 바라봤을 때 불화자로 보이매, 우리 조상들이 불화자니까 저 누운섬에 해서 일년에 한 번씩 제를 지내지 안 허민 동네에 불난다고 해. 그것을 1960년대까지 해서, 누운섬 바로 앞에 민물 나오는 디라. 그 옆에다가 들로 한 10평 집을 지영 매년 겨울에 비용을 마을에서 부담하고 그 시대에 새로 결혼한 남자들은 제관이 되고, 노인네들은 본관이 되고 제를 지내서. 경 해신디 1960년대에 그것은 어찌면 기독교인들과 천주교인들 때문에 안허는 지도 모르주게.

## 8. 매골동산 : 붉으내

우리 동네엔 속칭이 많주게. 여기는 매골동산 매골동산이렌 허고 또 저쪽으로 올라가민 왕자원. 그러니까 왕직혜 왕직혜. 탐라시대에 쳐들어왔을 때 왕이 피헛는가 보다 라고 이런 생각도 들어. 전쟁에 있어서 사람이 죽으니까 매골관계는 매골이고, 피가 흘러서 저수물이 흐르는 내는, 밑에 우리 용수 건넌 길 옆에 있는 내를 붉으내 붉으내렌 허매. 적천. 그것도 언젠가 불이 붙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엇주. 경행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죽은 사람들은 매골 매골 여기는 내들이 많이 있어서 흘러져 문혔을 것이라고. 피가 흘러신디 비가 오니까 빨정게 되영 흐르니까 붉으내 붉으내렌 불렀다고도 해.

## 9. 쉼 죽은 못

<조사자 : 혹시 쉼 죽은 못이렌 알았수과?>

어떻게 나보다 잘 알았어?

<조사자 : 아니 저번에 신문에 보니까 조금 나와신디 좀 말해줍서?>

국민학교 뒤에 큰 밭 두개 이신디 얘기 들으민 좀 기량이 썩 사람이라. 이 한더위에 소를 쉬우지 않고 들어씩 막 오전 중으로 아마 겨울 때까지 한 2천평 정도 옛날 밭을 쉬우지 않고 일을 시킨 거라. 소는 헉헉거리지 그래도 주인은 패지. 경행 일해서는 딱 끝내고 물을 멕일려고 소한테 물을 갖다 대니까 소가 물 먹고 죽엇댕 허여. 사람 잘못 만남 너무 혹독하게 일 시켜부난 물 먹고 죽었다는 얘기주게.

## 10. 좌씨 유래담

제주도에 우리 선조가 들어온 지가 오래됐서. 내가 17대 손이라. 다음 다음 사람까지 빨리하며는 23대까지 갔을 거라. 한 세대가 30년이런 허민 연대가 한 5, 6백년 전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중국 주구섬에 우리 좌가가 이서. 경헌디 본이 청주 우리나라 청주가 아니고 중국 청준디 우리 조상이 뭐 똑똑했는지 뭐 쉼사 잘 멕였는지 이제 같으면 목장장으로 제주도에 보내진 거라. 이 탐라를 중국에서 관리할 때에 목장장으로. 그러니까 목장장이 말 멕이고 허는 책임자니까 그걸로 왔는데 제일 처음에 구좌읍 한동에 살아서. 평야가 저쪽에 같으면 그 지경에서 말 키워서. 목장장으로 있다가 요셋말로 그 나라가 쿠데타가 일어나서 뒤집어정 정권이 바뀌니까 목장장이 딴 사람이 오게 됐서. 그래 우리 선조들은 피해야 될 거 아니라? 우리 나이 많은 삼촌들, 할아버지한테 들은 얘기로 하면 한동에 남아있는 나라 한자 그 사람들과는 혼인하지 말아라. 우리는 왜 경허냐고 하니까 피해서 몇 세대가 서쪽으로 신창으로 넘어왔고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성씨를 나라 한으로 바뀌시난 우리 혈족이니까 사둔허지 말렌 허메. 우리 북제주군 농

촌 지도소장인 사람이 한동 사람이다 그 사람도 우리 조상이 좌씨하고는 결혼하지 말렌 gpt라고 해.

<제보자 : 이우규(남 · 64세)>

## 11. 화상수

옛날 지리학자가 왕 보니까 요 섬이 사람 죽을 형상이라. 사람 죽영 영장 나가는 형상이주게.

<조사자 : 누운섬, 와섬 예?>

와섬이 이렇게 높고 여기에 오백장군이 잇잖아 이? 오백장군을 상대라고 허메. 관나가는 형태라고 해. 와섬이 영장나가는 형태렌. 경행 지리학자가 와가지고 사람 못살 동네라고 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동네라고. 경헌디 여기 화상수가 이시난 살쨌다고 해. 화상수라고 하는 것은 화를 면허는 것이주게. 화상수가 있으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거렌.

<조사자 : 먼저 어떤 분한테 들어신디 섬을 보며는 섬 모양이 불화자 모양이라고 해신디 맞수과?>

그러니까 불화자라 화상수라 해 가지고 물이 생수가 나니까 그럭 면한다고 하는 거지. 물이 나니까.

<조사자 : 아. 불하고 물하고 반대니까. 옛날부터 제 지냈다고 허는데.>

거기가 제 지내는 곳이주게. 제를 안 지내민 불난다고 허메. 사람이 살 수 없는 동네라고 해신디 화상수가 이서그네 사람이 살 수 있다고 해.

## 12. 당산봉 이야기

당산봉이 고산에서 보민 사람이 앉아 있는 형태라. 사람이 앉앙 북치는 상이라. 그 가운데 이제 강씨산이라고 큰 산이 하나 잇는데 그

산이 명산이라고 해가지고 지리학자가 와 보니까 북을 치잖아. 북을 치면 가운데 치잖아? 가운데 보통으로 치거든. 그러니까 그 산에 가람 앉아 있는 형태니까 명산이라고 강씨산이렌 허메. 그러다가 가운데 북을 치다가 또 바위에 강 한 대 땡허고 때릴 수가 이서. 이리로 쪽 올라가면 고씨산이라고 바위에 때린 산이 고씨산이라. 명산이라고. 경행 사람들 물을 때 이 명산에다 묻엇주게.

- 조사자 : 박정섭(90), 김선희(93), 김혜진(93), 박소영(93), 이혜원(93), 윤미란(94), 강연실(95), 김진희(95), 오현심(95)



# 信 仰

## 차 례

1. 머리말
2. 공인종교
3. 마을신앙
4. 무속신앙

## 1. 머리말

이 보고서는 1995년 8월 11일부터 8월 14일까지 3박 4일간 한경면 용수리에서 이 마을의 신앙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이다. 조사는 공인종교, 마을신앙, 무속신앙으로 나뉘어 행해졌다. 개인신앙도 제보자들을 통하여 조사하려고 하였으나 지금은 남아 있는 형태가 전무하여 그것에 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남아있는 무속신앙도 지금은 그 기세가 미미했으며, 마을신앙의 한 모습인 천제도 지금은 지내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은, 천주교의 교세와 무관하지 않으며 새마을 운동의 영향도 있는 듯 했다. 게다가 이미 70~80년 전에 세워진 용수교회가 있었는데, 이러한 사실들은 무속신앙과 마을신앙에 대한 흡족한 자료수집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래서 제보자가 비록 70대라 하여도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다.

공인종교의 강세로 기대했던 무속신앙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지는 않았지만 모자라나마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정리해보고자 한다.

## 2. 공인종교

용수리의 공인종교로는 천주교회인 용수교회가 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로 용수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있으며, 국제 도덕협회라는 공식 명칭의 미륵도가 있다. 용수리의 공인 종교 중에 천주교의 교세가 가장 크며 불교신자도 있으나 용수리에는 절이 없어서 타지역으로 가서 불공을 드리고 있다.

### 1) 천주교

공식명칭은 신창 천주교회 용수공소이다. 공소 위치가 용당과 용수 경계에 있기 때문에 용당 주민들도 다니고 있다.

1947년에 용수주민 7명이 신창천주교회가 아직 공소일 때 걸어서 다녔고 교세를 펼친 끝에 1949년 9월에 신자 150명, 예비자 100명으로 용수에서 예배를 시작했다. 그렇게 되기 까지에는 김개담 전교회장과 그 집안에 시집과 천주교를 알게 된 박순득(수산나)씨의 노력이 컸다. 박순득씨는 김개담씨(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 뒤를 이어 전교 활동을 펴 1957년에는 고산까지 가서 105명을 세례성사 받게 하는 등 성과를 올려 급기야 63년도에는 550명까지 그 신자수가 늘어났다. 그러나 지금은 예전만큼 교세가 크지 못하다. 그 이유로는 과거보다 잘 살고 물자가 넉넉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못 살아서 미국의 구호 물자를 배급받으러 사람들이 와서 전교하기가 수월했다고 한다. 지금의 총 신자수는 253명이나 순수한 용수리민은 161명으로 남 54명, 여 107명이다(용수공소의 관할구역은 용당리, 주전 등이다.).

719평의 대지에 1961년에 개축을 한 공소에서는 토요일 저녁 8시 특전미사가 있고 성모회와 매피회(용당리)가 있으며 레지오활동을 하고 있다.

## 2) 기독교

### (1) 용수교회

- ① 명칭 : 대한예수교 장로회
- ② 종파 : 예수교 장로회로서 통합측에 속한다.
- ③ 위치 : 제주도 북제주군 한경면 용수리 3444-2
- ④ 연혁 : 김기평씨가 성안(제주시)를 찾아가 이기풍 목사에게 1908년 전도를 받았고, 1913년 2월 김기평 씨 내외분이 세례를 받았다. 1918년 봄, 윤식명 지방목사의 시무식과 더불어 지사포 교회라 하고 김기평 씨 자택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1921년 이춘봉 씨가 증정한 부지 60평에 초가 삼간인 예배당을 지어 용수교회라 했다. 제1대 장로인 김기평 씨가 창립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5세대가 타 교단 임마누엘기도원 교파로 분리해 나가기도 했다. 1973년 2월에는 드디어 현 위치인 용수리 3444-2번지에 예배당 42평, 사택 16평을 건축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고남수 목사가 시무하고 있으며 장로 2명, 권사 3명이 있다. 예배는 매일 새벽 기도회가 있고, 수요 기도회가 있으며, 일요일 오전 11시, 오후 2시에 있다. 남 30명, 여 70명, 어린이도 많다.
- ⑤ 사업 : 1973년부터 3년간 용수리 농촌 어린이를 위한 농번기 탁아소를 운영하였으나 탁아소, 유치원이 들어서면서 운영을 중단하였다. 진세포 지사가 50만원을 헌금하면서부터 장학위원회가 1982년에 발족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 (2) 예루살렘 교회

- ① 주소 : 제주도 북제주군 한경면 용수리 4394번지
- ② 목사 : 유윤홍
- ③ 원로장로 : 김계향
- ④ 창립일 : 1970년 5월 15일

- ⑤ 공식명칭 : 대한예수교 장로회 연합측(대한예수교에는 통합측, 연합측, 합동측 세 가지가 있다.)
- ⑥ 신도수 : 45명 중 남 18명, 여 21명 총 39명이 매일 나온다.
- ⑦ 중·고등부는 남자 1명, 여자 6명
- ⑧ 예배 : 일요일 새벽 낮 3차례, 수요일 한차례
- ⑨ 사업 : 성탄절날 불우이웃을 돕고, 교회에서 양봉업을 하면서 꿀을 마을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시골이고 신도수가 많지 않아 재정적으로 기반이 약하다. 타 지역과 같은 교단이 많이 있으나 도움을 받지 않는다.
- ⑩ 경위 : 1970년에 김성배 목사가 서귀포 교회를 개척하고 이름을 짓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용수리의 지형이 이스라엘과 비슷하다고 여기어 이름을 예루살렘이라고 지었다 한다.
- ⑪ 과정 : 처음에 용수리에는 교회가 없었다. 용수 교회를 건립한 분이 교회를 제주시까지 걸어 다니다가 그 교회에서 갈라져 나오게 되었다. 그 이유는 그 교회는 그 교회에 다니던 장로 1명과 집사 3명 등 모두 6명이 1970년에 서귀포에 병을 고치는 목사가 왔었는데 거기 가서 병을 고치고 은혜를 받았다. 그 은혜는 방언의 은혜로 직접 하나님과 말을 할 수 있는 '방언의 은혜'를 받은 것이다. 그 은혜를 받은 후에 자주 방언으로 기도를 하자 그 당시에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들렸다고 이단시 하였다고 했다. 그 후 6명을 이단이라 하여 용수교회에서 출교 조치를 내려 따로 떨어져 나와 교회를 건립한 것이다. 따라서 교리에서는 다른 점이 하나도 없다고 하겠다.

### 3) 미륵도

- (1) 주소 : 한경년 용수리 4317번지

- (2) 명칭 : 공식 명칭은 국제도덕협회인데 보통 미륵도라 불린다.
- (3) 신도 : 지금은 이찬일 씨와 그 부인만 믿고 있다.
- (4) 본부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1731-8
- (5) 예배 : 매일 아침 7시와 8시에 행하고 매월 음력 1일, 15일에 한다.
- (6) 금기 : 구도를 한 사람은 특별히 금기를 정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몸이 따라지게 되어 있다고 본다.
- (7) 인사, 보사, 점전사가 있어야만 구도를 할 수 있다고 본다.
- (8) 강령 : 道德濟世 眞理化民 教正世道 實踐綱倫 國是順應
- (9) 교리 : 이 세계의 역사를 3기로 나누어 제1기는 영등고불부처가 지배하는 세계, 제2기는 석가모니 부처가 지배하는 세계이며, 제3기는 미륵부처가 지배하는 세계라 한다. 즉 석가의 시대가 지나고 나면 미륵의 시대가 온다는 신앙인데, 오늘날은 미륵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다(미륵도에서는 남자의 기운이 다하고 여자의 기운이 컸다고 한다.). 그래서 달마도사의 상을 모시고 있고 이에 따라 예배법도 특이하다. 즉, 제1기는 연잎이 성장하는 것에 해당하는 시기이므로 연잎모양으로 거수예배를 했고, 제2기인 석가의 시기는 연꽃이 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꽃모양으로 합장예배를 했지만, 미륵의 시대는 열매를 맺는 시기이므로 열매모양으로 주먹을 쥐고 예배를 한다는 것이다.

### 3. 마을신앙

용수리에는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천제와 절부 고씨를 기리기 위한 묘제가 있다. 천제는 지금부터 25년~32년 전에 사라졌고 홀기도 태워버려 지금은 천제를 지냈던 제청터만 남아 있다. 반면, 묘제는 매해 행해지고 있으며 이 때에는 용수리뿐만 아니라 고산, 신창, 군의 각 기관 사람들이 참석하고 있다.

### 1) 묘제(절부제)

- (1) 명칭 : 절부제, 묘제 또는 절부암 묘제
- (2) 제일 : 음력 3월 15일
- (3) 제관 : 제관-유지급 3명, 집사-2명(경험있는 사람)

절부암에서 언제부터 제사를 지냈는나 하는 것은 제보자마다 달랐다. 이우규 씨(66세)는 7~8년 전부터라고 했고, 진유생 씨(75세)는 20년 정도 되었다고 했다. 처음에는 당오름에 있는 고씨할머니 부부 무덤에서 지내오다가 지금은 절부암이 있는 밑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다. 여기로 옮겨오면서 처음에는 이장집에서 제사 음식 등을 관장했으나 이장 중에 기독교 등을 믿는 사람들이 있게 되면서 7~8년 전부터 부녀회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게 되었다. 이 제사에 드는 경비(묘제비)는 1946년에 마을의 어부나 해녀들이 그 때 당시 자리 1말(300원)씩의 돈을 모아 산 300평 짜리 길없는(막아진) 밭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충당할 수 있었다.

당오름에서 제를 지낼 때에는 고산과 용수 제관들만 참석했었으나 절부암 위치로 옮긴 뒤로는 용수리장, 청년회장, 어촌계장이 미리 당오름에 가서 미리 상을 차리고 신고하는 것이 끝나면 절부암에서 10시에 제를 지내게 된다.

<제보자 : 진유생(75세), 이우규(66세), 김미옥(75세)>

- (4) 人祭 : 祭日 전 보름동안 목욕재계, 금욕을 한다.
- (5) 行祭 : 일반 가정에서 하는 양식과 비슷하다.
  - ① 모두 함께 절을 한다.
  - ② 내관(2)이 잔을 내려 고령자 순으로 앉아서 잔을 드리고 나서 잔 올린 후 축문을 낭독한다.
  - ③ 고인을 기리며 묵념하다.
  - ④ 각 기관 대표가 나와서 잔을 드리고 나서 올린다.
  - ⑤ 내관들이 마지막으로 잔 드린다.

⑥ 지방을 소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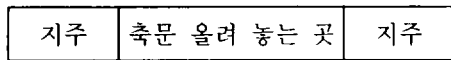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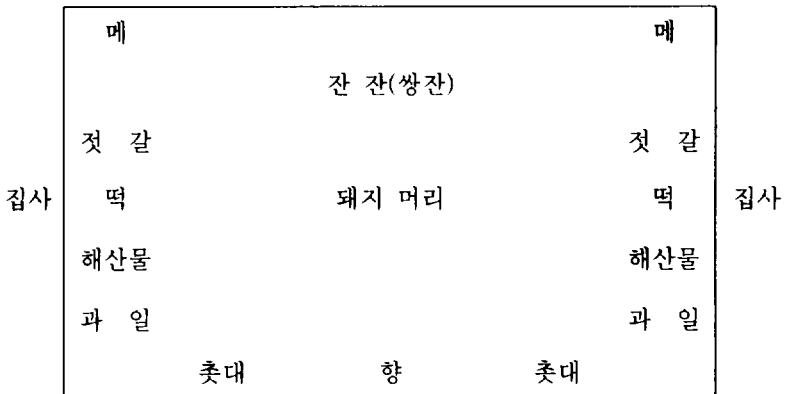
(6) 祝文

○○○○년 ○월 ○일 묘제 祝文

維 歲次 乙亥 三月 辛酉 朔 十五日 乙亥 獻官 ○○ 敢昭告于  
 業式 康公 節婦 高氏 貞節卓異 衆庶仰之 慈值季春 薦人是宜(정절  
 이 뛰어나서 모든 사람이 推仰하니 이에 계춘(陰 3월)을 만나 정  
 성껏 祭祀함이 마땅하다.)  
 誰次 清酌 庶者 祇天歲事

(7) 陳設

병풍을 친다  
지 방



제관                      제관                      제관(리장)

\* 당오름 고씨할머니 부부 무덤에 있는 비문 해석

武班인 康士喆의 妻 高氏의 貞節을 기리는 碑

高氏는 耽羅의 武班인 高應秋의 딸인데 道光 十五年 乙未(1835년)에 出生하고 咸豐 二年 壬子(1852년)에 康士喆에게 出嫁하였으나 집이 가난하였다. 翌年 癸丑(1853년) 十一月 十三日 그녀의 男使이 遮歸島에 대나무(竹)를 베러 갔다가 바다에 빠져 屍體가 가라앉고 나타나지 않았다. 高氏는 屍體를 찾으려고 바닷가를 돌아다니면서 慟哭하였고 물결을 따라 다니면서 몸은 물거품을 입었으나 찾지 못한 채 날을 보내고 飮食을 먹지 아니하다가 그 달 十五日 밤에 바닷가 나무에 목을 매어 自殺하였더니 그 뒤 三日만에 男使의 屍體가 果然 그 언덕 아래 이르렀으니 精誠이 이미 하늘을 感動시킨 것이다. 죽었으니 男使과 合葬하였다. 젊은 시골 女子로서 殉節을 다할 수 있었으니 참으로 一代에 다시 없는 일ियो. 千古에 드문 일이라 할 것이다. 官廳의 指諭은 이미 嘉尙함이 많았고 御史의 完文도 더욱 激勵하여 勸함을 썼다. 그러나 旌門에 對해서는 上奏하여 裁可를 請함은 일의 重人性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子女가 없었고 마침내 親戚도 적어서 높고 뛰어난 名聲이 사라지려고 하였다. 나는 恒常 이를 안타깝게 여겨 오던 터였는데 이제 여기에 碑를 새겨 敢히 讚辭를 써서 그옥한 節概를 기린다.

同治六年(1867년) 仲夏(五月) 濟州判官 愼裁祐 지음  
役事擔當 金應河 글씨 씀



## 2) 천제

- (1) 명칭 : 천제
- (2) 제일 : 매년 음력 정월 보름의 자시(11시-1시)에 제를 지낸다.
- (3) 제장 : 용수리 바닷가에 있는 화상물 근처에서 지낸다.
  - ① 회소집 : 천제를 지내고자 할 때에는 총회를 열어 7명의 제관을 선출하고 제관들은 화상물 곁 祭廳에서 근신하며 정성을 다한다.
  - ② 성금 : 총회를 열 때 쓰일 경비를 감안하여 마을 전체적으로 각 호당 얼마씩 추렴한다(이 때에는 보통 돼지 한 마리 값을 사는데 드는 비용을 모으게 된다.).
- (4) 제관 : 7명을 선출한다.
  - ① 7명의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 ② 소재관
  - ③ 금기 : 제관들은 고상한 말을 하고 매일 화상물에서 목욕재계했으며 화상물 근처에 있는 祭廳에서 밥을 해 먹으며 일주일 동안을 산다.
- (5) 제물 : 제물은 돼지 한 마리 뿐인데 이때에는 팔팔 끓인 물에 돼지를 삶아서 창자만 빼고 통째로 올린다.
- (6) 人祭 : 제관들은 화상물 근처 祭廳에서 매일 목욕재계하고 밥을 해 먹으면서 몸을 더럽히지 않고 조심한다. 이 때에는 고상한 말을 해야하는 등 제약이 심하다. 일주일 동안의 식사는 지난해에 새장가든 사람들이 마련하게 되는데 한 번은 팔죽 한 동이를 쭈어오라고 해서 나눠서 먹는다.
- (7) 行祭 : 제일 전날의 戌時가 되면 제관들은 다시 목욕을 하고 나서 陳設을 한 뒤 子時가 되면 부르는 笏記에 따라 예를 거행한다. 홀기와 축문은 찾아볼 수 없다.
- (8) 제사를 지내고 나서 돼지를 내려 삶는 순간에는 제관 한명을 선발해서 닭 한 마리를 가지고 본향당에 가서 제를 지냈다고 한다(이우

규씨는 用人(급사)을 시킨다고 했다.).

- (9) 음복 : 올렸던 돼지와 미리 빼놓았던 돼지 창자를 삶아서 나누어서 먹는다.
- (10) 천제에 쓰였던 축은 그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죽자 그 식구들이 유물을 태우는 과정에서 태워버려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고 한다. 천제가 사라진지는 25년 정도 되었다. 그 이유는 이 마을에 기독교와 천주교가 성행하면서 제사에 쓰이는 경비를 마련하고자 할 때 각 호당 돈을 걷는데 수월하지가 않았으며 그들의 세력이 강해지면서 제를 지내는 것에 대해 반대하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그 시기에 새마을운동까지 일어나면서 그 반대는 가속화되었다. 현재 화상물 곁에는 당시 천제를 지냈던 슬라브집의 잔재가 남아 있다. 슬라브 집은 일제시대 때 지어진 것으로 천제가 없어질 때와 때를 같이하여 없어졌고 지금은 그 터만 남아 있다. 한편 마을에 가뭄이 들면 드리던 기우제도 이 화상물에서 행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 때에는 돼지를 쓰지 않으며 천제 때보다 간소한 것으로 보인다(이우규).

### 3) 메(매)조재기

- (1) 메(매)같이 솟은 돌이라 하여 그렇게 부른다고 한다(진유생).
- (2) 쌓은 연대는 불확실하다.
- (3) 진유생 씨가 어렸을 적에 이방사탑이 허물어지자 새로 만들었다고 한다. 이 때에 그 방사탑 안에는 자손이 없는 사람의 무쇠술이 들어갔다고 하였으며, 이환 씨(74세)는 “상 한 상을 차려 제를 지냈으며 제물로는 고기와 사과, 밥이 쓰였으며 그 방사탑 안에는 옷 한 벌과 무쇠술이 들어갔다”고 했다.
- (4) 역할 : 바다에서 어부들이 무사귀환하는 것과 죽은 송장이 마을 포구로 떠오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 (5) 어느 쪽이 남자이고 어느 쪽이 여자인지는 알 수 없으나 바다를 바라보아 오른쪽이 여자인 듯 하다. 이환 씨는 오른쪽 방사탑 꼭대기의 뒷통수가 튀어나와 쪽진 머리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므로 여자라고 했다.

#### 4. 무속신앙

용수리에는 본향당인 곳새왓 할망당, 그리고 개당이 있다. 농사와 어업을 같이 하는 마을치고는 너무 빈약해 보였다. 곳새왓 할망당은 용수국민학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소나무 숲속에 있었다. 그리고 개당은 절부암이 있는 포구에 있었는데 밀물 때는 당이 있는 바로 근처까지 물이 차 올랐다.

마을의 전반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이 두 당에는 소수이지만 꾸준히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 특히 개당은 船主들이 다니는데 기독교나 천주교를 믿는 사람은 다니지 않는다고 했으며 이 당에 다니는 선주는 여덟이라고 했다(김순철(60세)).

##### 1) 곳새왓 할망당

- (1) 신명 : 곳새왓 卍日本郷이라 한다.  
(2) 계보 : 이 신은 용수·용당 두 마을의 수호신으로 그 계보는 '거막'(에월읍 금악리)으로부터 祭源하고 '거머들'(한경면 두모리)거머들 卍日本郷神인데 그 거머들 卍日本郷에서 가지 갈라온 神이 '판포'(한경면 판포리) 손도물 卍日本郷과 용수리의 곳새왓 卍日本郷이다.  
(3) 당의 형태 : 신목형  
(4) 제물 : 당에 가기 며칠 전에 미리 쌀을 담가 두었다가 떡을 만든

다. 가을 난에는 환타 등의 음료수를 사고 생선 구운 것을 가져가며 사과, 귤 등의 과일도 가지고 간다. 배는 3기를 가지고 가며 음식을 놓을 접시 세 개와 술잔 종지를 함께 가지고 간다. 밥을 판독에 올리고 술잔으로 쓰일 종지도 올려놓는다. 접시 하나에는 생선 구운 것, 두 번째 접시에는 과일, 나머지 접시에는 통닭게 만든 다대기 떡 내어젓개를 올려놓는다.

올려놓은 밥에 새를 찍어서 꽃아 놓아 젓가락 대용으로 한다. 사 가지고 간 명주술로 노란색, 붉은색, 파란색의 명주를 묶어서 걸어 두거나 지전을 걸기도 한다. 가지고 간 쌀을 주먹만큼 잡아서 뿌리고 걸어두었던 것들을 태우면서 가족의 안녕을 빚고 나머지 음식은 나눠서 먹는다. 그리고 판독에 올렸던 음식은 조금씩 뜯어내어 잔에 모아식 깨에다 비운다.

## 2) 개당

1) 신명 : 개할방당

2) 제일 : 정월 대보름날 신주들만 신방을 데려다가 한다. 개인적으로 불자라가 안 좋을 때나 사고가 있을 때는 의논을 하여 전부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만 하는 경우도 있다. 보통 한달에 두 번씩 혹은 한 번씩 조하부나 보름에 하는데 동네에 영장이 있으면 '버렸다' 하여 다른 날을 보아서 한다. 개인적으로 일년에 한두번 신방을 데려다가 하기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정월 대보름외에 날을 보아서 하기도 한다.

3) 계보 : 이 부락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갈라간 것이 고산에 있다고 분다(김순철).

4) 계물 : 배 1기 달고 있는 일반 계사음식과 동일하다. 다만, 돼지머리가 사용된다는 점이 다르다.

- (5) 최근에 당이 지지분해서 벽돌을 쌓아서 옆을 막았는데 벽돌을 쌓은지는 3년 정도 되었다고 한다.
- (6) 제가 끝나고 나면 음식들을 조금씩 뜯어내어 돌틈에 넣는다.  
(예전에는 케가 있었지만 지금은 어느 지정된 돌틈을 케로 사용하고 있다.<제보자 : 김순철(60세)>

■ 조사자 : 이현정(93), 김현(93), 김한길(93), 조정숙(93), 이지명(93)